

에너지산업 수도 기틀 마련 '성과'...재정적자 해소 '과제'

●한전 본사 나주 이전 10주년 '빛과그림자'

인구 약 4만명·평균연령 34.2세 '활력 도시' 변모
에너지밸리·BIXPO·켄텍 등 에너지 인프라 성과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불구 총부채 203조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삼성동에서 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한 지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에너지밸리 조성 등 에너지산업 수도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해소는 당면 과제로 남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상전벽해 10년 '지역사회와 상생 그린다'

한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에 서울 삼성동 시대를 종료하고 본사를 나주 빛가람동으로 이주한 빛가람 혁신도시 대표 공공기관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이전한 16개 기관 7천500여명 중 30%에 해당하는 2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존 허허벌판이던 빛가람혁신도시가 이제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크고(인구 약 4만명) 활기 넘치는 도시(평균연령 34.2세)로 변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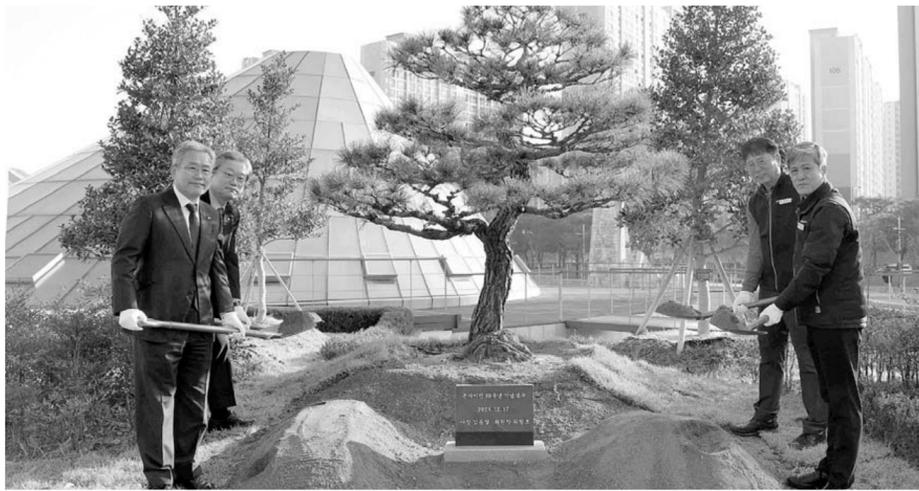
한전은 광주시와 전남도 등 양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하게 공동 건설을 합의한 혁신도시다. 이 가치에 걸맞게 지역

상생에도 공을 들여왔다.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난해 기준 약 1조299억원의 지역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했고, 매년 '이전지역인재 채용 우대 제도'를 통해 총 1천541명의 광주·전남 지역 인재를 채용했다.

◇지역경제 '유미미한 발전' 견인

한전 본사 이전은 나주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본사가 있는 빛가람동 인구는 지난 2014년 4천명에서 올해 4만명으로 10년간 10배 늘었다. 본사 근무 인원은 2014년 1천485명에서 올해 1천908명으로 423명 증가했다. 나주시 인구는 2014년 9만669명에서 올해 11만7천108명으로 2만6천434명 늘었다. 이주(정착)율도 2014년 11%(추정)에서 올해 58.5%로 47.6%p 증가했다.

거주 인구 증가로 인해 나주시 예산과 세수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예산은 2014년 5천982억에서 올해 1조1천779억으로 5천847억원 늘었다. 세수는 2014년 440억원에서 올해 1천192억원으로 752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17일 본사 10주년을 맞아 나주 본사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해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전력망 확충과 신사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생태계 혁신의 선구자'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식수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동철 한전 사장, 전영상 상임감사 위원, 최연순 노조 수석부위원장, 최철호 노조위원장.

◇에너지산업 수도 '1막 1장 열다'

한전은 본사 이전과 함께 지역 진흥 대표 사업인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광주·전남 지역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혁신도시 인근 4개 권역에 걸친 에너지밸리를 조성해 337개의 에너지 기업을 지역에 유치했고, 3천600여명의 고용 효과를 달성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글로벌 에너지산업 엑스포인 BIXPO도 성과가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분야 신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으며 그동안 관람객 36만1천716명, 2천여기업 참여와 2억500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켄텍(한국에너지공대)은 한전의 미래를

책임질 썩크탱크다.

지난 2022년 3월 개교해 현재 446명의 창의·융복합 공학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연구분야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414건(825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54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 '갈길 멀다'

지난 9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

는 202조9천900억원으로 지난해 말(202조4천500억원)보다 4천400억원가량 늘었다.

대규모 부채로 한전은 작년 한 해만 4조4천500억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하루 122억원 수준이다.

분기 평균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이자비용 부담은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도 순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3분기에도 한전은 약 3조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순이익은 1조9천억원을 밑돌았다. 최근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제 경제 영향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재정 적자 해소 속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은 17일 본사 10주년을 맞아 나주 본사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해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전력망 확충과 신사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생태계 혁신의 선구자'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식수를 시행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앞으로 에너지 신기술과 신사업이 주도할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국내 전력 생태계의 근본적인 발전과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외국인 취업자 100만 넘었다

월 200만원대 임시·일용직 중심...한국계 중국인, 베트남인 50% 육박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자 중 절반가량은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임금직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천명으로 전년보다 13만명(9.1%) 증가했다.

이중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7천명 늘어난 101만명이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취업 비자 쿼터

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단순 노무인력(E-9·비전문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 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25만 8천명), 영주(10만5천명)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46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업(14만4천명) 등에서도 10만명을 상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95만6천명으로 대부분(94.6%)을 차지했다.

임시·일용직은 32만9천명으로 임금직의 34.4%를 차지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약 28% 수준인 점에 비추면 외국인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다.

외국인 임금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구간이 48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5만4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상주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8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17.4%가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등을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추운날 공사맨 콘크리트 강도 높여야...비올때 원칙적 타설 금지

국토부, 공사기준 개정...올해 말부터 시행

하루 평균 기온이 영하 4도(℃) 이하인 추운 날 건설 공사를 할 때는 콘크리트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비와 눈이 시간당 3mm 넘게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운 날과 비 오는 날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을 담고 있다.

콘크리트는 저온에서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하루 평균 기온이 4℃ 이

하라면 6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혼화제의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플라이 애시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 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혼화제는 시멘트·물·자갈·모래 이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과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한다. 그러나 기온이 낮을 때는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한다.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해 콘크리트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 책임기술자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기온 보정 강도와 혼화제 사용 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 타설해야 한다면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체적 강우량 기준을 '시간당 3mm'로 잡았다.

이와 함께 강우량이 시간당 3mm 이하일 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따라야 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때는 현장 양생 공사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달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염색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제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